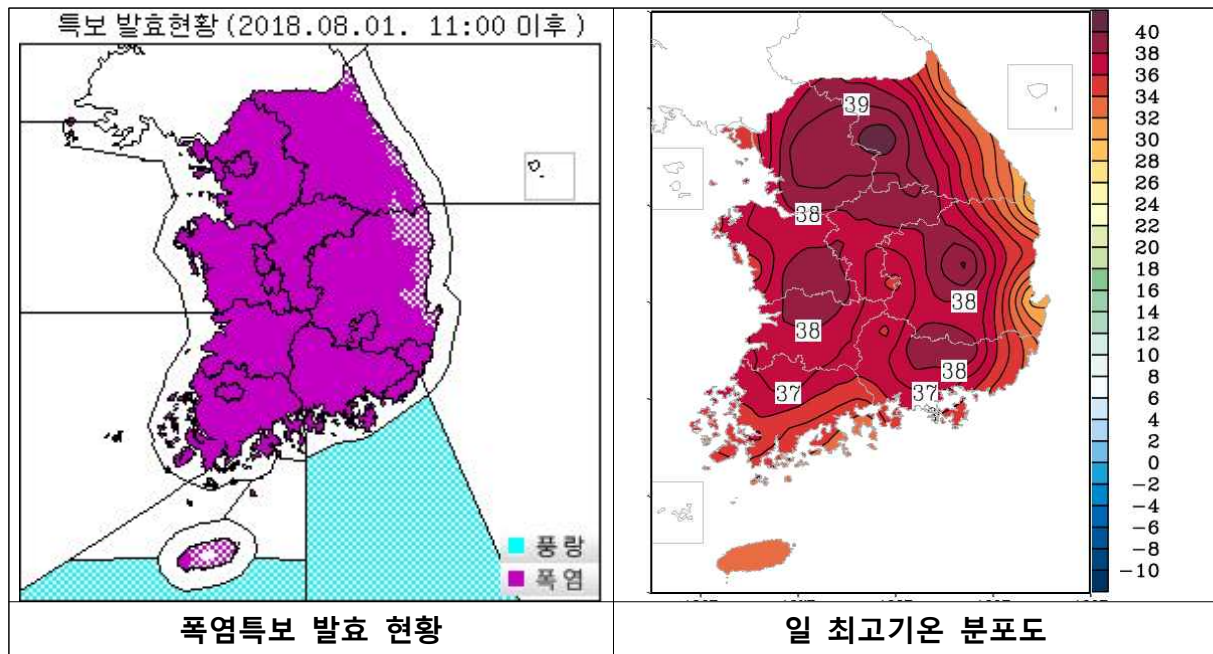


배포일시	2018. 8. 1.(수) 17:00 (총 3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수도권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예보관	정종운 최운	전화번호 070-7850-8220 070-7850-8240

### 서울, 양평 등 일 최고기온 극값 경신

- 서울 39.6℃ 양평 40.1℃로 관측 시작 이래 일 최고기온 극값 1위 기록
- 오늘과 내일 수도권 등 서쪽지역 중심 폭염 강화, 이후에도 폭염 지속



<일 최고기온과 특보 현황(8월 1일 16시 30분 현재)>

□ 현재 수도권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, 서울 39.6℃, 양평 40.1℃, 수원 39.3℃ 등 일부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 극값을 기록하였음.[별첨 참조]

- 서울은 종전의 기록인 38.4℃(1994년 7월 24일)를 뛰어넘으면서, 1907년 10월 1일에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였고,
  - 특히, 양평(1972년 1월 11일 관측 시작)은 40.1℃를 기록하여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음.

※ 이후에도 최고기온이 오를 수 있으므로, 극값의 경신과 변동 가능성이 있음.

□ 이와 같이 고온이 나타난 원인은 대기상층에 티벳고기압이 위치한 상태에서 그 아래에 북태평양고기압이 위치하여 고기압이 강화되면서 전국이 맑은 가운데, 강한 일사로 인해 기온이 올랐기 때문임.

- 여기에 동풍에 의한 지형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극값이 경신되었음.

□ 또한,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사이 내려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,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질환 관리와 농·수·축산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.

- 당분간 전국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이 많겠으니,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적극 참고하기 바람.

□ 별첨 : 기상관측 시작 이래 일 최고기온 극값 경신 주요 지점

**별첨**

**기상관측 시작 이래 일 최고기온 극값 경신 주요지점 (16시 30분 기준)**

관측 지점	관측 개시일	1위		2위		3위		4위		5위	
		최고기온	경신일	최고기온	경신일	최고기온	경신일	최고기온	경신일	최고기온	경신일
서울	1907.10.01.	<b>39.6</b>	<b>2018.08.01.</b>	38.4	1994.07.24	38.3	2018.07.31	38.2	1994.07.23	38.2	1943.08.24
수원	1964.01.01.	<b>39.3</b>	<b>2018.08.01.</b>	37.5	2018.07.31	37.5	2018.07.22	37.4	2012.08.05	37.3	1994.07.23
이천	1972.01.11.	<b>39.4</b>	<b>2018.08.01.</b>	38.3	1977.07.24	38.2	1994.07.18	37.9	1994.07.22	37.7	2012.08.05
양평	1972.01.11.	<b>40.1</b>	<b>2018.08.01.</b>	37.6	1994.07.23	37.4	2018.07.22	37.2	2018.07.31	37.1	2018.07.30
동두천	1998.02.01.	<b>38.7</b>	<b>2018.08.01.</b>	36.4	2012.08.04	36.3	2014.08.02	36.3	2012.08.05	36.2	2018.07.24
파주	2001.12.07.	<b>37.6</b>	<b>2018.08.01.</b>	36.7	2018.07.22	36.5	2012.08.03	35.9	2012.08.06	35.9	2012.08.05

※ 이후에도 최고기온이 오를 수 있으므로, 극값의 경신과 변동 가능성이 있음.